

사진으로 보는 라틴아메리카

조영실

○ 마추픽추 발견 100주년을 맞아 유물 반환 합의



1911년 미 예일대 고고학자 하이럼 빙엄은 우연히 발견한 마추픽추에서 도자기와 보석, 유골, 석기 등 유물을 본국으로 가져갔다. 페루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예일대에 유물 반환을 계속 요구해 왔고, 협상 끝에 올해 유물 5천점을 반환키로 합의하였다. 예일대와 페루 산 안토니오 아바드 대학은 '마추픽추·잉카문화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반환된 유물을 전시하기로 하였다.

○ 반복되는 항공기 사고, 멕시코 내무장관의 연이은 죽음



지난 11월 11일 멕시코 호세 프란시스코 블라케 모라 내무장관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다. 장관 일행은 모렐로스 주 쿠에르나바카에서 열린 검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 멕시코 당국은 기상 악화라고 최종 발표를 했지만 블라케 모라 장관이 타협 없는 '마약과의 전쟁'을 총 지휘했다는 점에서 음모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11월 4일에도 후안 카밀로 모우리뇨 당시 내무장관이 탑승한 경비행기가 멕시코시티 도로에 추락해 사망했다. 사진은 영결식장에서 오열하는 블라케 모라 장관의 유족.

○ 칠레 대학생, 교육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



칠레 대학생들은 지난 5월부터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예산의 실질적인 증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적은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최초의 시위는 5월 12일 전국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선언과 함께 수도 산티아고의 알라메다 거리의 시가행진으로 시작되었고, 중고등학생연합, 전국교육자협회, 노동자단체 등의 지지와 연대로 이어지며 현재까지 집회와 시위가 반 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시위는 산티아고뿐만 아니라 북으로는 아리카, 이키케, 발파라이소, 남으로는 테무코, 콘셉시온, 발디비아, 푸에르토몬테에서도 있으며, 콜롬비아와 같은 인접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위 사진은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교육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대학생들.

왼쪽 사진은 지난 11월 10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우리는 인적자본이 아니라 인간이 되려고 교육을 받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콜롬비아 대학생들.

조영실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외래교수